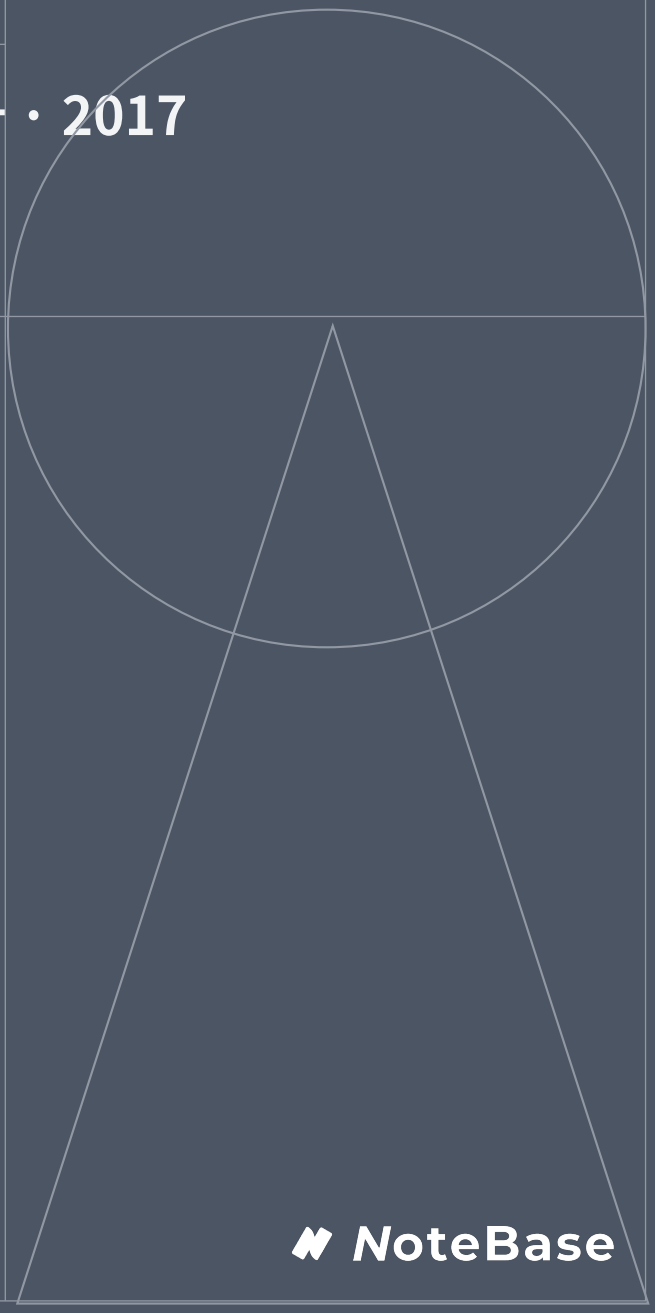
#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서울시/7급 · 한국사 · 2017



NoteBase

# 기출OX 해설집

## 공무원/서울시/7급 · 한국사 · 2017

**공무원/서울시/7급 · 한국사 · 2017**

**문 1. 다음 여말선초기에 일어난 역사적 사건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ㄱ.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
ㄴ. 이방원에 의한 정몽주 암살
ㄷ. 공양왕의 폐위
ㄹ. 이성계 및 정도전 주도로 과전법 실시

① ㄱ - ㄴ - ㄷ - ㄹ
② ㄱ - ㄴ - ㄹ - ㄷ
③ ㄱ - ㄹ - ㄴ - ㄷ
④ ㄱ - ㄹ - ㄷ - ㄴ

**정답 3번**

**정답**

정답은 3번이다.

**출제 포인트**

여말선초의 정치 변동을 대표하는 사건들을 연도와 인과관계로 연결해 순서를 판단하는 문제이다.

**올바른 순서**

1. ㄱ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 - 1388년이다.
2. ㄹ 이성계 및 정도전 주도로 과전법 실시 - 1391년 공양왕 때 시행된 개혁이다.
3. ㄴ 이방원에 의한 정몽주 암살 - 1392년 선죽교 사건이다.
4. ㄷ 공양왕의 폐위 - 1392년 조선 건국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왜 이 순서: 위화도 회군 이후 고려 말 개혁으로 과전법이 먼저 시행되었고, 이후 정몽주가 제거된 다음 공양왕이 폐위되며 조선 왕조가 성립한다.

NoteBase

### 선지별 해설

① X: ㄹ이 맨 뒤에 배치된 점이 틀렸다. 과전법 실시는 1391년이므로 정몽주 암살과 공양왕 폐위보다 앞선다. 올바르게는 'ㄱ-ㄹ-ㄴ-ㄷ'이다.
② X: ㄴ과 ㄹ의 선후가 바뀌었다. 정몽주 암살은 1392년이고 과전법 실시는 1391년이므로 과전법이 먼저이다. 올바르게는 'ㄱ-ㄹ-ㄴ-ㄷ'이다.
③ O: ㄱ(1388) - ㄹ(1391) - ㄴ(1392) - ㄷ(1392)의 흐름이 맞다. 고려 말 개혁이 먼저 나오고, 정몽주 제거 뒤 공양왕 폐위가 이어진다.
④ X: ㄴ과 ㄷ의 선후가 바뀌었다. 정몽주 암살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 공양왕이 폐위된다. 올바르게는 'ㄱ-ㄹ-ㄴ-ㄷ'이다.

### 오답 포인트

정몽주 암살과 공양왕 폐위가 모두 1392년에 일어나므로 둘의 앞뒤를 헷갈리기 쉽다. 또한 과전법을 조선 건국 이후 제도로 착각하면 ㄹ을 뒤로 보내기 쉽다.

###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순서 문제는 각 사건을 먼저 연도로 고정한 뒤 같은 해 사건은 조선 건국 전후의 흐름으로 다시 나누어 판단한다. 여말선초는 위화도 회군 → 과전법 → 정몽주 암살 → 공양왕 폐위의 큰 줄기를 잡으면 된다.

### 암기 포인트

회군 뒤 개혁, 개혁 뒤 제거, 제거 뒤 폐위의 흐름이다.

NoteBase

**문 2. 다음 대한제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과거와는 달리 목포, 군산, 원산을 스스로 개항하였다.
ㄴ. '대한국국제'는 황제에게 육해군 통수권, 입법권, 행정권, 조약체결권 등 모든 권한을 집중시켰다.
ㄷ. 두 차례에 걸쳐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하였고, 지계발급사업을 실시하였다.
ㄹ. 만국우편연합에 가입하고, 만국박람회에 참여하였다.

① ㄱ, ㄴ
② ㄱ, ㄴ, ㄷ
③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정답 3번**

**정답**

정답은 3번이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대한제국의 자주 개항, 대한국국제, 광무개혁, 대외 활동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구분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자주 개항: 외세의 강요가 아니라 대한제국 정부가 스스로 개항장을 늘린 것이다. 대한제국이 자주 개항한 대표 항구는 목포, 군산, 마산이다.
대한국국제: 1899년에 반포된 대한제국의 통치 규범으로, 황제권을 크게 강화한 전제 군주 체제를 분명히 한 것이다.
광무개혁: 양전사업을 통해 토지를 조사하고 지계를 발급하여 근대적 토지 지배 체제를 정비하려 한 개혁이다.
대외 활동: 대한제국은 만국우편연합에 가입하고 만국박람회에 참여하며 국제 사회에서 자주 국가의 위상을 드러내려 하였다.

NoteBase

### 선지별 해설

1번 X: ㄴ은 옳지만 ㄱ이 틀려서 조합 전체가 틀리다. 틀린 표현은 "원산을 스스로 개항하였다"이다. 원산은 이미 개항된 항구였고, 대한제국이 자주 개항한 곳은 목포, 군산, 마산이다.
2번 X: ㄴ, ㄷ은 옳지만 ㄱ이 틀려서 조합 전체가 틀리다. 올바른 조합은 ㄴ, ㄷ, ㄹ이다.
3번 O: ㄴ은 대한국국제가 황제에게 광범한 통치권을 집중시켰다는 내용이므로 옳다. ㄷ은 광무개혁 과정에서 양전사업을 두 차례 실시하고 지계를 발급한 사실을 말하므로 옳다. ㄹ은 대한제국이 만국우편연합에 가입하고 만국박람회에 참여한 사실이므로 옳다.
4번 X: ㄴ, ㄷ, ㄹ은 옳지만 ㄱ이 틀려서 조합 전체가 틀리다. 틀린 조합에서 빼야 하는 것은 ㄱ이며, 올바르게는 3번의 ㄴ, ㄷ, ㄹ만 고른다.

### 오답 포인트

ㄱ의 항구 이름을 헷갈리기 쉽다. 대한제국의 자주 개항은 목포, 군산, 마산인데, 원산은 그보다 앞서 이미 개항된 항구이므로 이 차이를 놓치면 1번, 2번, 4번을 고르게 된다.

###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대한제국 문제는 자주 개항, 황제권 강화, 광무개혁, 국제 교류를 항목별로 나누어 본다. 그다음 항구 이름처럼 고유명사가 바뀐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면 조합형 선지의 정오를 빠르게 가를 수 있다.

### 암기 포인트

대한제국은 목군마 자주 개항, 대한국국제로 황제권 강화, 양전사업과 지계 발급, 만국우편연합 가입으로 정리된다.

NoteBase

**문 3. 1960년 4·19 혁명 전후 정치·사회적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혁명적 분위기 속에서 혁신 정당세력도 총선거에 참여하여 정치적으로 크게 약진하였다.

②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한 뒤 허정 과도정부가 내각책임제 개헌을 단행하였고, 총선거를 통해 민주당 정권이 탄생하였다.

③ 4·19 혁명의 도화선에 불을 붙인 것은 청년학생들이었지만, 곧 전 민중적 항쟁으로 발전하였다.

④ 1961년에 접어들면서 민중운동은 생존권 차원을 넘어 한국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제기하고, 민족통일운동으로 나아갔다.

**정답 1번**

**정답**

정답은 1번이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4·19 혁명 직후의 정치 재편과 민중운동의 전개 양상을 정확히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허정 과도정부는 이승만 하야 뒤 과도적으로 정국을 수습하며 내각책임제 개헌과 총선거를 거쳐 제2공화국 성립으로 이어진다. 혁신정당 세력은 4·19 이후 합법 정치 공간에 다시 등장하였지만 총선에서 민주당처럼 크게 세력을 넓히지는 못하였다. 1960년대 초 민중운동은 학생 시위를 넘어 사회 구조 개혁과 통일 문제까지 제기하는 방향으로 확대되었다.

**선지별 해설**

1번: X. 틀린 부분은 "정치적으로 크게 약진하였다"이다. 4·19 이후 혁신정당 세력이 총선거에 참여한 것은 맞지만, 의회 진출 규모는 제한적이어서 크게 약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올바르게는 "혁신정당 세력도 총선거에 참여하였으나 정치적 약진은 제한적이었다"이다.
2번: O. 이승만 대통령 하야 뒤 허정 과도정부가 내각책임제 개헌을 추진하였고, 총선거를 거쳐 민주당 정권이 성립하였다. 제2공화국 출범 과정을 정확히 서술한 선지이다.
3번: O. 4·19 혁명의 직접적 도화선은 학생층의 시위였고, 이후 교수와 시민이 결합하면서 전국적 민중 항쟁으로 발전하였다. 학생 시위에서 대중적 혁명으로 확대된 흐름을 옳게 잡았다.
4번: O. 1961년 무렵에는 민중운동이 단순한 생존권 요구를 넘어 사회 구조 개혁과 민족통일 문제까지 제기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4·19 이후 사회운동의 심화를 설명한 선지이다.

NoteBase

### 오답 포인트

1번은 "혁신정당세력도 총선거에 참여"했다는 앞부분이 맞기 때문에 전체를 맞는 말처럼 보이게 만든다. 그러나 출제자는 뒤의 "크게 약진"이라는 과장 표현을 넣어 혁신계의 실제 정치적 성과를 부풀린 점을 함정으로 삼았다.

###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4·19 직후 문항은 정권 교체 과정, 제2공화국의 성립, 혁신계의 실제 세력 규모, 민중운동의 확대 방향을 각각 분리해서 본다. 특히 "크게", "전면적으로" 같은 과장 표현이 보이면 실제 성과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다시 확인하면 정답을 가를 수 있다.

### 암기 포인트

4·19 뒤 민주당은 집권하고, 혁신계는 합법화되었지만 크게 약진하지는 못하였다.

NoteBase

**문 4. 밑줄 친 이 승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이 승려는 고려 초기에 귀법사의 주지를 역임하였고, 남악파와 북악파의 통합을 위해 인유(仁裕)와 함께 큰 사찰의 승려를 찾아가 설득하여 화엄종파의 분쟁을 종식시켰다. 958년에는 시관(試官)이 되어 유능한 승려들을 많이 선발하였다.

<보기>
ㄱ. 『신편제종교장총록』을 편찬하였다.
ㄴ. 『천태사교의』를 저술하였다.
ㄷ. 성상융회를 주장하였다.
ㄹ. 향가를 지음으로써 국문학 사상 큰 업적을 남겼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ㄷ, ㄹ

**정답 4번**

**정답**

정답은 4번이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고려 승려 균여를 그의 활동, 사상, 저술과 연결하는 문제이다.

**핵심 정리**

균여: 화엄종 통합, 성상융회, 『보현십원가』 - 광종 때 화엄종의 분열을 수습하고 사상 통합을 추구한 승려이다.
의천: 『신편제종교장총록』 - 교장을 정리하여 교종 중심의 불교 통합을 추진한 인물이다.
제관: 『천태사교의』 - 고려 승려로 송에서 천태 교학을 정리한 인물이다.

NoteBase

### 선지별 해설

① X: ㄱ과 ㄴ이 모두 균여의 업적이 아니다. 『신편제종교장총록』의 편찬은 의천과 연결되고, 『천태사교의』의 저술은 제관과 연결된다. 올바르게는 ㄱ은 의천, ㄴ은 제관이다.
② X: ㄷ은 균여와 연결되지만 ㄴ은 균여의 업적이 아니다. 『천태사교의』는 제관의 저술이다. 올바르게는 ㄴ 대신 ㄹ이 들어가야 한다.
③ X: ㄹ은 균여의 업적이지만 ㄴ은 균여의 업적이 아니다. 『천태사교의』는 제관의 저술이다. 올바르게는 ㄴ 대신 ㄷ이 들어가야 한다.
④ O: ㄷ의 성상융회 주장과 ㄹ의 향가 창작은 모두 균여에 해당한다. 따라서 ㄷ, ㄹ을 묶은 ④가 옳다.

### 오답 포인트

균여, 의천, 제관은 모두 고려 불교사 인물이어서 저술명과 사상을 서로 바꾸어 넣으면 쉽게 흔들린다. 『신편제종교장총록』은 의천, 『천태사교의』는 제관, 『보현십원가』는 균여로 끊어서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고려 승려 문제는 인물명보다 대표 키워드로 먼저 판별하는 방식이 안정적이다. 균여는 화엄종 통합과 성상융회, 『보현십원가』이고, 의천은 교장 정리, 제관은 『천태사교의』로 연결하면 조합 선지를 빠르게 걸러낼 수 있다.

### 암기 포인트

균여 = 화엄 통합·성상융회·『보현십원가』, 의천 = 『신편제종교장총록』, 제관 = 『천태사교의』이다.

NoteBase

**문 5. 베베르(웨베르)·고무라 각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조선이 청의 중재를 거치지 않고 러시아와 직접 조러통상 조약을 체결하였다.

② 조선이 러시아와 조러비밀협약을 추진하자 영국이 거문도를 불법 점령하였다.

③ 일본이 아관파천 이후 수세에 몰리자 러시아와 세력 균형을 위한 협상을 하였다.

④ 일본이 러일전쟁에서 승리하자 미국과 영국으로부터 조선에 대한 독점권을 인정받았다.

**정답 3번**

**정답**

정답은 3번이다.

**출제 포인트**

이 문항은 베베른·고무라 각서의 체결 배경과, 개항기 조선을 둘러싼 열강의 외교 사건들을 시기와 성격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베베른·고무라 각서는 1896년 아관파천 이후 조선에서 일본의 입지가 약해지자 일본과 러시아가 충돌을 피하며 조선 문제를 타협한 각서이다.
거문도 사건은 1885년 영국이 러시아의 남하를 견제하려고 거문도를 불법 점령한 사건이다.
러일전쟁 이후의 대한 우월권 인정은 1905년 무렵 일본이 미국·영국과의 외교를 통해 조선 지배를 국제적으로 승인받아 가는 흐름이다.

NoteBase

### 선지별 해설

① X
조러 수호 통상 조약은 1884년에 체결된 것으로, 베베른·고무라 각서와 다른 사건이다.
틀린 부분은 "청의 중재를 거치지 않고"이다.
올바르게는 조선은 청의 알선 아래 러시아와 조러 수호 통상 조약을 체결하였다.

② X
이 선지는 1885년 거문도 사건의 배경을 설명하는 내용에 가깝고, 베베른·고무라 각서에 대한 설명이 아니다.
틀린 부분은 베베른·고무라 각서와 같은 사건처럼 연결한 점이다.
올바르게는 거문도 사건은 영국이 러시아의 남하를 견제하기 위해 거문도를 점령한 사건이고, 베베른·고무라 각서는 그보다 뒤인 1896년 아관파천 이후 러일 협상으로 체결되었다.

③ O
아관파천 이후 조선에서 일본의 세력이 크게 약해졌고, 일본은 러시아와 정면 충돌을 피하면서 조선에서의 세력 균형을 도모하려고 협상하였다.
베베른·고무라 각서는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체결된 것으로, 선지의 방향이 맞다.

④ X
이 선지는 러일전쟁 이후 일본이 미국·영국과 외교적으로 조선에 대한 우월권을 인정받아 가는 상황을 가리킨다.
틀린 부분은 이를 베베른·고무라 각서와 연결한 점이다.
올바르게는 베베른·고무라 각서는 1896년 아관파천 직후의 러일 협상이고, 러일전쟁 승리 뒤 대한 우월권 인정은 1905년 전후의 별도 외교 전개이다.

### 오답 포인트

개항기 외교사는 모두 러시아·일본·영국이 반복해서 등장하므로 사건명을 외우지 않고 열강 이름만 보고 판단하면 쉽게 흔들린다. 특히 ②의 거문도 사건, ④의 러일전쟁 이후 외교 승인 과정은 모두 러시아 견제와 조선 문제를 다루므로 베베른·고무라 각서와 혼동하기 쉽다.

###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사건의 기준 시점을 잡으면 된다. 거문도 사건은 1885년, 베베른·고무라 각서는 아관파천 직후인 1896년, 미국·영국의 대한 우월권 인정은 러일전쟁 뒤인 1905년 무렵으로 정리하면 선지 구분이 쉬워진다.

### 암기 포인트

거문도 사건은 영국의 러시아 견제, 베베른·고무라 각서는 아관파천 뒤 러일 타협, 러일전쟁 뒤에는 일본의 대한 우월권 인정으로 이어진다.

NoteBase

**문 6. 고려 최씨 무신 정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재추회의에서 국가의 중대사가 논의되었다.

② 최충헌은 상·대장군의 합의 기구인 중방의 권한을 강화하였다.

③ 최충헌과 최우는 부를 설치하여 왕자 등과 동등한 지위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④ 최윤의 등이 지은 의례서인 상정고금예문이 인쇄되었다.

**정답 2번**

**정답**

정답은 2번이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고려 최씨 무신 정권기의 정치 기구와 주요 사실을 인물 및 제도와 정확히 연결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정리**

최충헌: 교정도감을 중심으로 권력을 장악하고 도방을 확대하여 사적 권력 기반을 강화한 인물이다.
최우: 정방을 설치하여 인사권을 장악하고, 강화 천도기 최씨 정권을 이끈 인물이다.
재추회의: 재신과 추밀이 함께 국가의 중대사를 논의하던 회의체이다.
중방: 무신 정변 직후 상장군·대장군의 합의 기구로 기능하였으나, 최씨 정권기에는 핵심 권력 기구가 아니었다.

NoteBase

**기출OX 해설집 · 공무원/서울시/7급 · 한국사 · 2017**

**선지별 해설**

① O
재추회의는 재신과 추밀이 함께 참여하여 국가의 중대사를 논의하던 회의체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② X
틀린 부분은 "중방의 권한을 강화하였다"이다. 최충헌은 중방을 강화한 것이 아니라 교정도감과 도방 같은 자신의 사적 권력 기구를 중심으로 정권을 운영하였다. 올바르게는 "최충헌은 교정도감을 중심으로 권력을 장악하였다"이다.

③ O
최충헌은 진강부, 최우는 진양부를 두어 왕자에 준하는 예우와 지위를 공인받았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④ O
상정고금예문은 최윤의 등이 편찬한 의례서이며, 최씨 무신 정권기에는 금속 활자로 인쇄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옳은 설명이다.

**오답 포인트**

중방은 무신 정변 직후의 대표 기구이고, 교정도감·정방은 최씨 무신 정권기의 대표 기구이다. 같은 무신 정권 시기의 제도라는 이유로 중방과 교정도감의 시기와 성격을 섞으면 ②에 걸리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최씨 무신 정권 문제는 인물명보다 권력 기구의 연결로 판단하는 편이 빠르다. 최충헌은 교정도감·도방, 최우는 정방, 최윤의 등은 상정고금예문으로 연결하면 선지 판단이 쉬워진다.

**암기 포인트**

최충헌=교정도감, 최우=정방, 최윤의 등=상정고금예문, 중방=초기 무신 정변 기구이다.

NoteBase

**문 7. 삼국시기 불교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고구려의 보덕은 도교에 밀려 불교가 쇠퇴함을 개탄하였고, 후에 열반종을 제창하였다.

② 백제에서는 계율종이 크게 성행하였는데, 겸익이 대표적인 승려이다.

③ 신라에서는 호국불교가 크게 성행하였으나 밀교는 성행하지 못하였다.

④ 신라의 화랑은 미륵이 인간세계에 내려온다는 미륵하생신앙과 관련이 있다.

**정답 3번**

**정답**

정답은 3번이다.

**출제 포인트**

삼국의 불교 성격과 대표 승려, 신앙 요소를 정확히 연결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고구려의 보덕은 연개소문의 도교 진흥으로 불교가 위축되자 이를 비판하며 열반종을 전개한 승려이다.
백제의 겸익은 인도에서 율부를 배우고 돌아와 계율종 확산에 기여한 승려이다.
신라는 호국불교가 강했지만 밀교도 함께 전개되었고, 화랑도는 미륵하생신앙과 연결된다.

**선지별 해설**

① O
보덕은 고구려 말기에 도교 우대 속에서 불교 쇠퇴를 한탄한 승려로 알려져 있으며, 뒤에 열반종을 전개하였다. 선지의 핵심 연결이 맞다.
② O
겸익은 인도에 가서 율장을 배우고 돌아와 백제에 계율을 전한 승려이다. 따라서 백제에서 계율종이 성행하였고 겸익이 대표 승려라는 설명은 맞다.
③ X
틀린 부분은 "밀교는 성행하지 못하였다"이다. 신라에서는 호국불교뿐 아니라 명랑, 혜통 등과 관련된 밀교도 전개되었다. 올바르게는 "신라에서는 호국불교가 성행하였고 밀교도 전개되었다"이다.
④ O
신라 화랑도는 미륵이 인간 세계에 내려온다는 미륵하생신앙과 관련이 있다고 본다. 화랑을 미륵의 현신처럼 이해한 점과 연결된다.

NoteBase

### 오답 포인트

③의 "호국불교"만 기억하고 "밀교는 성행하지 못하였다"까지 그대로 받아들이면 틀리기 쉽다. 신라는 호국 성격과 밀교 전개가 함께 나타났다는 점이 함정이다.

###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삼국 불교 문제는 나라별 대표 승려와 종파, 신앙을 짝지어 판단하면 된다. 고구려는 보덕과 열반종, 백제는 겸익과 계율, 신라는 호국불교와 미륵 신앙, 그리고 밀교 전개 여부를 함께 확인하면 정리가 된다.

### 암기 포인트

보덕-열반종, 겸익-계율, 신라-호국불교와 밀교, 화랑-미륵 신앙으로 묶어 기억한다.

NoteBase

**문 8. 밑줄 친 이 사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사람은 1501년에 출생하여 1572년에 타계한 경상우도를 대표하는 유학자이다. 그의 학문사상 지표는 경(敬)과 의(義)이다. 마음이 밝은 것을 '경(敬)'이라 하고 밖으로 과단성 있는 것을 '의(義)'라고 하였다. 이러한 그의 주장은 바로 '경'으로써 마음을 곧게 하여 수양하는 기본으로 삼고 '의'로써 외부 생활을 처리하여 나간다는 생활 철학을 표방한 것이었다.

① 문인들이 주로 북인이 되었다.

② 이황과 사단칠정 논쟁을 벌였다.

③ 『동호문답』, 『만언봉사』 등을 저술하였다.

④ 일본의 성리학 발전에 큰 영향을 끼쳤다.

**정답 1번**

**정답**

정답은 1번이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남명 조식의 생애와 경의사상, 그리고 그의 학맥이 연결된 정치 세력을 묻는 인물 매칭 문제이다.

**핵심 정리**

- 조식: 경과 의를 함께 중시한 남명학파의 대표 유학자이며, 내면 수양과 현실 실천을 함께 강조하였다.
- 이황: 성리학의 이기론을 깊이 전개하였고 기대승과 사단칠정 논변을 벌인 영남학파의 대표 학자이다.
- 이이: 현실 개혁론과 경세론에 강점이 있었고 『동호문답』, 『만언봉사』를 저술하였다.
- 일본 성리학 영향: 조선 성리학의 일본 전파에서는 주로 이황의 학문이 크게 영향을 주었다.

**선지별 해설**

① O: 조식의 문인들은 주로 북인 계열로 성장하였다. 남명학파가 선조 대 이후 북인의 사상적 기반이 되었다는 점과 연결하면 맞는 선지이다.

② X: 틀린 부분은 '이황과 사단칠정 논쟁을 벌였다'는 표현이다. 사단칠정 논변은 이황과 기대승 사이의 논쟁이다.

③ X: 틀린 부분은 '『동호문답』, 『만언봉사』 등을 저술하였다'는 표현이다. 이 저술들은 이이의 저술이며, 조식의 저술로 연결하면 틀리다.

④ X: 틀린 부분은 '일본의 성리학 발전에 큰 영향을 끼쳤다'는 표현이다. 일본 성리학 발전에 큰 영향을 준 인물로는 일반적으로 이황을 연결한다.

NoteBase

### 오답 포인트

조식, 이황, 이이를 모두 조선 중기 성리학자로 묶어 두면 선지가 서로 비슷하게 보인다. 그러나 조식은 경의사상과 북인, 이황은 사단칠정 논변, 이이는 『동호문답』·『만언봉사』로 대표 표지를 잡아 두면 혼동이 줄어든다.

###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인물 문제는 긴 생애를 통째로 외우기보다 대표 표지를 먼저 연결해 판단한다. 조식이면 경과 의, 북인 계열 문인, 경상우도라는 표지를 먼저 확인하고, 사단칠정 논변이나 『동호문답』이 보이면 각각 이황과 이이로 돌려서 판단한다.

### 암기 포인트

조식 = 경의사상 = 경상우도 = 문인 다수 북인이다.

NoteBase

**문 9. 다음 삼국시대 대외 관계와 관련된 사료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ㄱ. 10월 왕(백제)이 정병 3만 명을 거느리고 고구려 평양성을 침공하였다.
ㄴ. 왕(고구려) 10년 보병과 기병 5만 명을 파견하여 신라를 구원하게 하였다.
ㄷ. 9월 왕(고구려)이 군사 3만 명을 이끌고 백제에 침략하여 한성을 함락시켰다.
ㄹ. 백제왕 모대가 사신을 보내 혼인을 청하며, 신라왕은 이찬 비지의 딸을 보냈다.

① ㄱ - ㄴ - ㄷ - ㄹ
② ㄱ - ㄴ - ㄹ - ㄷ
③ ㄴ - ㄱ - ㄷ - ㄹ
④ ㄴ - ㄱ - ㄹ - ㄷ

**정답 1번**

**정답**

정답은 1번이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삼국 시대 대외 관계 관련 사료를 시대순으로 배열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올바른 순서**

1. ㄱ - 371년 백제 근초고왕이 고구려 평양성을 공격한 내용이다.
2. ㄴ - 400년 고구려 광개토대왕이 5만 군사를 보내 신라를 구원한 내용이다.
3. ㄷ - 475년 고구려 장수왕이 백제 한성을 함락한 내용이다.
4. ㄹ - 493년 백제 동성왕(모대)과 신라의 혼인 동맹 내용이다.

왜 이 순서: 백제의 평양성 공격이 가장 이르고, 광개토대왕의 신라 구원이 그 뒤이다. 한성 함락은 장수왕 시기의 일이며, 백제와 신라의 혼인 동맹은 한성 함락 이후 웅진 천도 뒤에 이루어진다.

**선지별 해설**

① O - ㄱ(371) → ㄴ(400) → ㄷ(475) → ㄹ(493)의 순서가 맞다.
② X - 틀린 부분은 ㄹ을 ㄷ보다 앞에 둔 점이다. 올바르게는 장수왕의 한성 함락(ㄷ, 475)이 동성왕의 혼인 동맹(ㄹ, 493)보다 먼저이다.
③ X - 틀린 부분은 ㄴ을 ㄱ보다 앞에 둔 점이다. 올바르게는 백제의 평양성 공격(ㄱ, 371)이 광개토대왕의 신라 구원(ㄴ, 400)보다 먼저이다.
④ X - 틀린 부분은 ㄴ을 가장 앞에 두고 ㄹ을 ㄷ보다 앞에 둔 점이다. 올바르게는 ㄱ이 가장 먼저이고, ㄷ이 ㄹ보다 앞선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ㄷ과 ㄹ의 선후를 바꾸기 쉽다. 모대는 동성왕이므로 웅진 시기 백제이며, 장수왕의 한성 함락 이후 신라와 결혼 동맹을 맺는다. 또한 광개토대왕의 신라 구원은 5세기 초이고, 근초고왕의 평양성 공격은 4세기 후반이므로 ㄱ이 ㄴ보다 앞선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삼국 관계 사료의 순서 문제는 왕 이름과 사건명을 먼저 대응한 뒤 세기와 연도를 붙여 판단한다. 근초고왕-평양성 공격, 광개토대왕-신라 구원, 장수왕-한성 함락, 동성왕-혼인 동맹처럼 대표 사건을 연표에 놓으면 순서가 정리된다.

**암기 포인트**

근초고왕 평양성 공격 371 → 광개토대왕 신라 구원 400 → 장수왕 한성 함락 475 → 동성왕 혼인 동맹 493이다.

NoteBase

**문 10. 다음 <보기>의 내용과 같은 분위기가 유행한 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혈색 좋은 흰 피부가 드러날 만큼 반짝거리는 얇은 양말에, 금방 발목이나 빠지 않을까 보기에 조마조마한 구두 뒤로 몸을 고이고, 스커트 자락이 비칠 듯 말 듯한 정강이를 지니는 외투에 단발 혹은 미미가쿠시(당시 유행하던 머리모양)에다가 모자를 푹 눌러 쓴 모양 ... 분결 같은 손에 경복궁 기둥 같은 단장을 휘두르면서 두툼한 각테 안경, 펑퍼짐한 모자, 코 높은 구두를 신고 ... (『별건곤』 모년 12월호)

① 『신여성』, 『삼천리』 등의 잡지는 새로운 패션이나 화장법을 소개하여 유행을 이끌었다.
② 대한천일은행, 한성은행, 조선은행 등이 설립되어 경성 상인에게 자본을 빌려주어 유행을 뒷받침하였다.
③ 조선총독부는 기존의 우측통행 방침을 바꾸어 좌측통행을 일반화하였다.
④ 사회주의 운동의 영향으로 식민지 현실의 계급 모순을 비판하는 프로 문학이 등장하였다.

**정답 2번**

**정답**

정답은 2번이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모던 걸·모던 보이가 유행한 1920년대 경성의 도시 대중문화와 그 시대 사회·문화 현상을 연결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보기의 분위기는 1920년대 문화 통치기 이후 경성에 퍼진 근대 도시 소비문화이다. 신여성·잡지 문화·카페 문화·프로 문학 같은 현상이 함께 나타난다. 반면 대한천일은행·한성은행의 설립은 대한제국기 근대 금융기관 정비와 관련된 내용이고, 조선은행은 식민지 금융 통제 기관이므로 보기의 시대 분위기를 설명하는 내용이 아니다.

NoteBase

**기출OX 해설집 · 공무원/서울시/7급 · 한국사 · 2017**

**선지별 해설**

① O
『신여성』, 『삼천리』 등의 잡지는 신여성 담론, 패션, 화장법, 생활양식을 소개하며 도시 유행을 확산시켰다. 보기의 모던 걸 풍조와 맞는 설명이다.

② X
틀린 부분은 '대한천일은행, 한성은행, 조선은행 등이 설립되어 경성 상인에게 자본을 빌려주어 유행을 뒷받침하였다'는 연결이다. 대한천일은행·한성은행의 설립은 대한제국기 근대 금융 제도와 관련된 내용이고, 조선은행은 일제가 식민지 금융을 장악하기 위해 둔 기관이다. 올바르게는 '보기의 분위기는 1920년대 도시 대중문화의 확산과 관련이 있으며, 대한천일은행·한성은행의 설립과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이다.

③ O
조선총독부는 일본식 생활 규범을 강요하는 과정에서 좌측통행을 일반화하였다. 이는 일제 강점기 도시 생활 변화의 한 모습으로, 보기의 시대 배경과 맞는다.

④ O
1920년대에는 사회주의 운동의 영향으로 식민지 현실과 계급 모순을 비판하는 프로 문학이 등장하였다. 카프 계열 문학의 전개는 보기와 같은 시대 분위기를 보여 준다.

**오답 포인트**

②는 '근대적 분위기'라는 공통점만으로 금융기관 설립과 1920년대 도시 대중문화를 한 시기로 묶게 만드는 함정이다. 모던 걸·잡지·카페·프로 문학은 1920년대 문화 통치기 이후의 현상이지만, 대한천일은행·한성은행 설립은 대한제국기 경제 근대화 맥락이라는 점이 다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단발, 모자, 카페, 잡지, 신여성, 프로 문학 같은 키워드가 보이면 먼저 1920년대 경성의 도시 대중문화를 떠올린다. 그다음 선지 중 대한제국기 개혁, 개항기 경제 제도, 국권 피탈 이전의 정책을 끼워 넣은 것이 없는지 시기를 대조하면 정답을 고를 수 있다.

**암기 포인트**

모던 걸·신여성·프로 문학은 1920년대이고, 대한천일은행·한성은행 설립은 대한제국기라는 구분이 핵심이다.

NoteBase

**문 11. 다음은 역사적 사실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이다. 다음 (가)와 (나)에 들어갈 역사적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백제의 고흥이 『서기』를 편찬하였다.
(가)
신라의 거칠부가 『국사』를 편찬하였다.
(나)
성덕대왕 신종이 완성되었다.

① (가) 충주고구려비가 세워졌다.
② (가) 황룡사 9층 목탑이 건축되었다.
③ (나) 이문진이 『신집』 5권을 편찬하였다.
④ (나) 김대성이 석굴암을 지었다.

**정답 2번**

**정답**

정답은 2번이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역사 사실의 편찬·건립·완성 시점을 기준 사건과 비교하여 (가), (나)에 들어갈 순서를 판단하는 문제이다.

**올바른 순서**

1. 백제의 고흥이 『서기』를 편찬하였다. - 근초고왕 때인 375이다.
2. 충주 고구려비가 세워졌다. - 장수왕 시기의 남진과 관련된 5세기 사건이다.
3. 신라의 거칠부가 『국사』를 편찬하였다. - 진흥왕 6년인 545이다.
4. 이문진이 『신집』 5권을 편찬하였다. - 고구려 영양왕 때인 600이다.
5. 김대성이 석굴암을 지었다. - 경덕왕 때인 751에 창건이 시작되었다.
6. 성덕대왕 신종이 완성되었다. - 혜공왕 때인 771이다.

왜 이 순서: (가)는 375년 『서기』와 545년 『국사』 사이의 사건이어야 하고, (나)는 545년 『국사』와 771년 성덕대왕 신종 사이의 사건이어야 한다.

NoteBase

### 선지별 해설

1번 O: 충주 고구려비는 5세기 장수왕의 남진 정책과 관련된 비로, 375년 『서기』 편찬 이후이면서 545년 『국사』 편찬 이전이므로 (가)에 들어갈 수 있다.
2번 X: 틀린 표현은 '(가) 황룡사 9층 목탑이 건축되었다'이다. 황룡사 9층 목탑은 선덕여왕 때인 645의 사건이므로 545년 『국사』 편찬보다 뒤이다. 올바르게는 '(나) 황룡사 9층 목탑이 건축되었다'로 보아야 한다.
3번 O: 이문진의 『신집』 5권 편찬은 고구려 영양왕 때인 600으로, 545년 『국사』 이후이면서 771년 성덕대왕 신종 완성 이전이므로 (나)에 들어갈 수 있다.
4번 O: 김대성의 석굴암 창건은 경덕왕 때인 751로, 역시 545년 『국사』 이후이면서 771년 성덕대왕 신종 완성 이전이므로 (나)에 들어갈 수 있다.

### 오답 포인트

『국사』 편찬 545와 황룡사 9층 목탑 645를 가까운 신라 중대 사건으로만 묶어 보면 (가), (나) 자리를 바꾸기 쉽다. 기준 사건의 연도를 먼저 고정하지 않으면 이런 함정에 걸린다.

###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연표 끼워 넣기 문제는 기준 사건 두 개의 연도를 먼저 잡고, 각 선지를 그 앞인지 사이인지 뒤인지만 비교하면 빠르게 정리된다. 문화사 사건도 왕대와 세기를 함께 연결하면 선후 판단이 쉬워진다.

### 암기 포인트

『서기』 375 → 『국사』 545 → 『신집』 600 → 황룡사 9층 목탑 645 → 석굴암 751 → 성덕대왕 신종 771의 흐름으로 정리된다.

NoteBase

**문 12. 조선 시대 '궁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각 궁궐이 처음 지어진 순서는 '경복궁-창덕궁-경희궁'이다.

② 후원(後園)은 궁궐의 북쪽에 있어서 북원(北園) 혹은 아무나 못 들어간다고 해서 금원(禁園)으로 불렸다.

③ 조정(朝廷)이란 말은 궁궐의 외전(外殿) 앞의, 품계석이 놓인 마당을 의미한다.

④ 양궐체제(兩闕體制)란 국왕의 중심공간인 법궁(法宮)과 중전이나 세자 등 왕실 가족의 공간인 이궁(離宮)을 의미한다.

**정답 4번**

**정답**

정답은 4번이다.

**출제 포인트**

조선 궁궐의 기본 용어와 양궐체제의 의미를 정확히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법궁은 국가의 공식 의례와 정치를 수행하는 중심 궁궐이다.
이궁은 법궁을 보완하여 임금이 거처하거나 정사를 볼 수 있는 별도의 궁궐이다.
양궐체제는 경복궁을 법궁으로, 창덕궁을 이궁으로 함께 운영한 체제이다.
조정은 외전 앞 품계석이 놓인 마당이고, 후원은 궁궐 북쪽의 왕실 정원이다.

NoteBase

### 선지별 해설

① O
경복궁이 가장 먼저 세워졌고, 그다음이 창덕궁, 그보다 훨씬 뒤가 경희궁이므로 순서가 맞다.

② O
후원은 궁궐 북쪽에 자리한 경우가 많아 북원이라 불렸고, 일반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여 금원이라고도 불렀다.

③ O
조정은 외전 앞마당으로 조회가 이루어지고 품계석이 놓인 공간을 뜻하므로 설명이 맞다.

④ X
틀린 부분은 "양궐체제가 국왕의 중심공간인 법궁과 중전이나 세자 등 왕실 가족의 공간인 이궁을 의미한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양궐체제는 경복궁 같은 법궁과 창덕궁 같은 이궁이라는 두 궁궐을 함께 운영하는 체제를 뜻한다.
중전이나 세자의 공간은 한 궁궐 내부의 내전·동궁 영역이지 이궁의 뜻이 아니다.

### 오답 포인트

이궁을 한 궁궐 내부의 왕실 가족 거처로 착각하면 ④를 맞는 설명처럼 보기 쉽다. 이궁은 법궁에 대응하는 별도의 궁궐이라는 점이 핵심 함정이다.

###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궁궐 관련 용어가 나오면 먼저 한 궁궐 내부 공간인지, 여러 궁궐의 운영 체제인지 구분하면 된다. 조정·후원은 궁궐 내부 공간이고, 양궐체제의 법궁·이궁은 궁궐 간 기능 분담이다.

### 암기 포인트

조정은 외전 앞마당, 후원은 북쪽 정원, 양궐체제는 경복궁·창덕궁의 두 궁 체제이다.

NoteBase

**문 13. 좌우합작 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제1차 미소 공동 위원회가 결렬되고 이승만 중심의 단독 정부 수립론이 제기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여 전개되었다.

② 여운형과 김규식 등 중도파가 중심이 되어 추진하였다.

③ 미 군정은 처음부터 이를 지지하지 않았으나 대중은 이 운동을 지지하였다.

④ 좌우합작 7원칙은 토지문제와 친일파 처리문제 등을 중도적 입장에서 조정한 것이었다.

**정답 3번**

**정답**

정답은 3번이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좌우합작위원회의 추진 배경, 주도 세력, 미군정의 태도, 좌우합작 7원칙의 성격을 정확히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좌우합작위원회는 1946년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 결렬 뒤 분단을 막고 통일 임시정부 수립을 추진하려고 여운형과 김규식을 중심으로 조직된 정치 기구이다. 결정 차이축은 미군정의 지원 여부와 대중적 기반의 크기이다. 키워드는 중도파, 통일 정부, 좌우합작 7원칙이다.
좌우합작 7원칙은 좌우 대립을 완화하면서 정치 통합과 사회 개혁을 함께 추진하려 한 절충적 강령이다. 키워드는 토지문제, 친일파 처리, 중도적 조정이다.

NoteBase

### 선지별 해설

① O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되고 이승만의 정읍 발언으로 남한 단독 정부론이 제기되자, 이에 대응하여 좌우합작운동이 전개되었다.
② O
좌우합작위원회는 여운형과 김규식 등 중도 세력이 중심이 되어 추진하였다. 좌익과 우익의 극단 대립을 완화하려는 성격이 분명하다.
③ X
틀린 표현은 "미군정은 처음부터 이를 지지하지 않았으나 대중은 이 운동을 지지하였다"이다. 실제로는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 결렬 직후 미군정이 좌우합작운동을 적극 지원하였고, 반대로 이 운동은 좌우 양극 세력의 반발 속에서 넓은 대중적 기반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④ O
좌우합작 7원칙은 토지문제와 친일파 처리문제 등을 포함하면서 급진과 보수의 사이에서 중도적 입장으로 조정한 성격을 지녔다.

### 오답 포인트

③은 미군정의 태도와 대중적 기반을 뒤집어 놓은 선지이다. 좌우합작은 미군정의 지원 아래 출발했지만 좌우 양측의 반발 때문에 대중적 확산이 약했다는 점을 바꾸어 제시하면 혼동하기 쉽다.

###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해방 직후 정치 운동 문제는 먼저 추진 배경, 주도 인물, 미국의 태도, 실제 성과를 분리해서 본다. 좌우합작은 여운형·김규식 주도, 미군정 지원, 좌우합작 7원칙 제시, 대중적 기반 약화와 좌절이라는 흐름으로 판단할 수 있다.

### 암기 포인트

좌우합작은 여운형·김규식이 이끌고 미군정이 지원했지만, 대중적 기반은 약해 좌절된 통일 정부 운동이다.

NoteBase

**문 14. 다음 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칠정산내편』은 이슬람 달력인 회회력을 개정 증보하여 번역해 놓은 것이다.
ㄴ. 『원생몽유록』은 사육신과 단종의 사후 생활을 그려 은연중에 세조를 비판하였다.
ㄷ. 이종휘는 『동사』를 지어서 고구려사에 대한 관심을 높였다.
ㄹ. 『박통사언해』는 일본에 포로로 잡혀갔었던 강우성이 만든 일본어 학습서이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ㄷ, ㄹ

**정답 2번**

**정답**

정답은 2번이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책 이름과 그 성격·편찬 배경·내용을 정확히 연결하는 문제이다.

**핵심 정리**

『칠정산내편』은 원의 수시력을 바탕으로 만든 역법 해설서이다.
『칠정산외편』이 이슬람계 역법인 회회력을 바탕으로 편찬된 책이다.
『원생몽유록』은 단종과 사육신의 억울함을 드러내며 세조의 찬탈을 비판한 작품이다.
이종휘의 『동사』는 고구려를 역사 계승의 중심축으로 중시한 역사서이다.
『박통사언해』는 중국어 학습서이지 일본어 학습서가 아니다.

NoteBase

### 선지별 해설

1번 X
ㄴ은 맞지만 ㄱ이 틀려서 오답이다.
ㄱ의 틀린 부분은 "『칠정산내편』은 이슬람 달력인 회회력을 개정 중보하여 번역해 놓은 것"이라는 연결이다.
올바르게는 『칠정산내편』은 수시력을 바탕으로 한 책이고, 회회력과 관련되는 것은 『칠정산외편』이다.

2번 O
ㄴ과 ㄷ이 모두 옳으므로 정답이다.
ㄴ은 『원생몽유록』이 단종·사육신의 사후 세계를 통해 세조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는 점에서 맞다.
ㄷ은 이종휘가 『동사』를 지어 고구려 중심의 역사 인식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맞다.

3번 X
ㄴ은 맞지만 ㄹ이 틀려서 오답이다.
ㄹ의 틀린 부분은 "『박통사언해』는 일본에 포로로 잡혀갔었던 강우성이 만든 일본어 학습서"라는 연결이다.
올바르게는 『박통사언해』는 중국어 학습서이며, 일본어 학습서가 아니다.
따라서 3번의 조합은 성립하지 않는다.

4번 X
ㄷ은 맞지만 ㄹ이 틀려서 오답이다.
틀린 부분은 3번과 같으며, 『박통사언해』를 일본어 학습서로 본 점이 잘못이다.
올바른 조합은 ㄷ, ㄹ이 아니라 ㄴ, ㄷ이다.

### 오답 포인트

『칠정산내편』과 『칠정산외편』을 뒤바꾸거나, 『박통사언해』를 일본어 교재로 착각하면 쉽게 흔들린다.
제목이 비슷한 책은 대표 연결어를 함께 외워 두어야 오답을 피할 수 있다.

###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서명만 보고 감으로 고르지 않고 책명마다 대표 연결을 먼저 확인하는 방식으로 판단한다. 『칠정산내편』은 수시력, 『칠정산외편』은 회회력, 『박통사언해』는 중국어, 『동사』는 이종휘·고구려 중심 역사 인식으로 연결하면 빠르게 정리된다.

### 암기 포인트

내편=수시력, 외편=회회력, 박통사언해=중국어, 동사=이종휘·고구려이다.

NoteBase

**문 15. 다음은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 단체에 대한 설명이다. (가)~(다)에 각각 들어갈 가장 알맞은 단어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1920년대 자유시 참변 이후 만주 독립군의 활동은 3부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3부 중 대체로 (가)는 북만주 지역 조선인 사회의 자치를 담당하였다. 1920년대 말 3부는 통합 운동을 벌인 결과 남북 만주에서 양대 세력으로 재편되었는데, 남만주에서는 (나)가 수립되고, 정당의 성격을 띤 조선혁명당과 군사 성격을 띤 조선혁명군이 결성되었다. 일제가 만주를 점령한 다음 중국 내의 독립운동 단체들 사이에서는 통합 운동이 제기되었다. 1937년 중일 전쟁이 일어나자 민족혁명당은 통합에 찬성하는 단체들과 연합하여 (다)을 결성하였다.

① 신민부 - 국민부 - 조선민족전선연맹

② 신민부 - 혁신의회 - 조선독립동맹

③ 정의부 - 국민부 - 조선민족전선연맹

④ 정의부 - 혁신의회 - 조선독립동맹

**정답 1번**

**정답**

정답은 1번이다.

**출제 포인트**

자유시 참변 이후 만주 독립운동 세력의 재편 과정에서 3부의 활동 지역, 남만주 통합 단체, 1937년 관내 통일 전선 단체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신민부는 북만주 지역 조선인 사회의 자치와 독립운동을 맡은 3부 중 하나이다. 키워드는 북만주와 자치이다.
국민부는 1920년대 말 남만주 통합운동의 결과 수립된 단체이며 조선혁명당과 조선혁명군의 기반이 되었다. 키워드는 남만주와 통합이다.
조선민족전선연맹은 1937년 중일 전쟁 이후 민족혁명당 등이 연합하여 결성한 통일 전선 조직이다. 키워드는 1937년과 통일 전선이다.
정의부는 남만주 기반의 3부이다. 혁신의회는 남만주 세력의 통합 과정에서 등장한 단체이지만 최종 통합 단체인 국민부와는 구별된다. 조선독립동맹은 1942년 중국 화북에서 결성된 단체이다.

NoteBase

### 선지별 해설

① O
(가) 신민부는 북만주 지역 조선인 사회의 자치를 담당하였다.
(나) 국민부는 남만주 통합운동의 결과 수립되었고, 조선혁명당과 조선혁명군이 함께 조직되었다.
(다) 조선민족전선연맹은 1937년 중일 전쟁 이후 민족혁명당 등이 연합하여 결성하였다.

② X
틀린 부분은 "(나) 혁신의회"와 "(다) 조선독립동맹"이다.
남만주 통합운동의 결과 수립된 단체는 혁신의회가 아니라 국민부이다.
1937년 결성된 통일 전선 조직은 조선독립동맹이 아니라 조선민족전선연맹이다.

③ X
틀린 부분은 "(가) 정의부"이다.
북만주 조선인 자치를 맡은 단체는 정의부가 아니라 신민부이다.
정의부는 남만주 기반의 3부이다.

④ X
틀린 부분은 "(가) 정의부", "(나) 혁신의회", "(다) 조선독립동맹"이다.
북만주 자치 단체는 정의부가 아니라 신민부이다.
남만주 통합운동의 귀결은 혁신의회가 아니라 국민부이다.
1937년 통일 전선 조직은 조선독립동맹이 아니라 조선민족전선연맹이다.

### 오답 포인트

신민부와 정의부를 모두 3부로만 외우면 북만주와 남만주 구분에서 흔들리기 쉽다. 또한 조선민족전선연맹과 조선독립동맹을 모두 중국 관내 통일 전선 계열로 묶어 두면 1937년과 1942년의 시기 차이를 놓치기 쉽다.

###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북만주인지 남만주인지로 3부를 가른다. 그다음 남만주 통합운동의 결과는 국민부, 1937년 중일 전쟁 직후 통일 전선은 조선민족전선연맹, 1942년 화북의 단체는 조선독립동맹으로 시기를 끊어 판단한다.

### 암기 포인트

북만주 자치는 신민부, 남만주 통합은 국민부, 1937년 통일 전선은 조선민족전선연맹이다.

NoteBase

**문 16. 다음 역사적 사실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ㄱ. 청의 요청으로 조선은 나선(러시아) 정벌에 조총병을 파병하였다.
ㄴ. 청의 정세 변화를 이용하여 윤휴를 중심으로 북벌 움직임이 제기되었다.
ㄷ. 조선과 청의 두 나라 대표가 백두산 일대를 답사하고, 국경을 확정하는 백두산정계비를 세웠다.
ㄹ. 안용복은 울릉도에 출몰하는 일본 어민들을 쫓아내고, 일본에 건너가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확인받고 돌아왔다.

① ㄱ - ㄴ - ㄷ - ㄹ
② ㄱ - ㄴ - ㄹ - ㄷ
③ ㄴ - ㄱ - ㄷ - ㄹ
④ ㄴ - ㄱ - ㄹ - ㄷ

**정답 2번**

**정답**

정답은 2번이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조선 후기 대외 관계와 영토 관련 사건의 선후를 정확히 배열할 수 있는지를 묻는 순서형 문제이다.

**올바른 순서**

1. ㄱ 나선 정벌 - 청의 요청으로 조선이 조총병을 보내 러시아를 격퇴한 사건으로 1650년대 효종 때의 일이다.
2. ㄴ 윤휴 중심 북벌 움직임 - 청의 정세 변화를 기회로 삼아 북벌론이 다시 제기된 흐름으로 나선 정벌 뒤의 일이다.
3. ㄹ 안용복의 도일 - 안용복이 일본에 건너가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영토임을 확인받은 사건으로 1696년 무렵이다.
4. ㄷ 백두산정계비 건립 - 조선과 청이 국경을 정리하며 백두산정계비를 세운 사건으로 1712년이다.

왜 이 순서: 나선 정벌은 효종 대 1650년대 사건이고, 안용복 사건은 1696년, 백두산정계비는 1712년이므로 ㄹ이 ㄷ보다 반드시 앞선다.

NoteBase

### 선지별 해설

1번: X. ㄱ-ㄴ까지는 맞지만 뒤가 틀렸다. 안용복의 도일과 영토 확인이 1696년경이고 백두산정계비는 1712년이므로 'ㄷ-ㄹ'이 아니라 'ㄹ-ㄷ'이어야 한다.
2번: O. ㄱ(나선 정벌) → ㄴ(윤휴 중심 북벌 움직임) → ㄹ(안용복의 도일) → ㄷ(백두산정계비)의 순서가 맞다.
3번: X. 'ㄴ-ㄱ'의 앞뒤가 바뀌었다. 나선 정벌은 효종 때 1650년대 사건이고, 윤휴를 중심으로 한 북벌 움직임의 재기는 그 뒤의 흐름이므로 올바르게는 'ㄱ-ㄴ-ㄹ-ㄷ'이다.
4번: X. 앞의 'ㄴ-ㄱ'도 틀리고 뒤의 'ㄹ-ㄷ'만 맞다. 가장 이른 사건은 나선 정벌이므로 시작은 ㄱ이어야 하고, 전체 순서는 'ㄱ-ㄴ-ㄹ-ㄷ'이다.

### 오답 포인트

수험생은 안용복 사건과 백두산정계비를 모두 숙종 대 대외 관계로 묶어 두고 순서를 뒤집기 쉽다. 또 북벌론의 전개와 나선 정벌을 모두 청과 관련된 사건으로만 기억하면 ㄱ과 ㄴ의 선후를 혼동하게 된다.

###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순서형 한국사 문항은 먼저 각 사건을 왕대와 대략의 연대로 묶은 뒤, 같은 시기 사건끼리는 더 구체적인 연도를 비교해 배열하면 된다. 이 문항에서는 1650년대, 1696년, 1712년만 잡아도 정답을 고를 수 있다.

### 암기 포인트

효종의 나선 정벌이 먼저이고, 숙종 때 안용복 다음에 백두산정계비가 온다.

NoteBase

**문 17. 다음 내용들이 일어난 왕대의 사실과 가장 관련이 적은 것은?**

이 시기 국왕은 6조를 직접 장악하면서 국정을 운영하였으며, 친위병을 강화하고 군권 관장에 유념하였다. 또한 공신을 발탁하여 의정부, 6조, 승정원과 고위 군직에 포진시켰다. 특히 재위 4년에 별시위가 3000명에서 5000명으로, 6년에 내금위가 100명에서 200명으로 늘어났다. 아울러 재위 12년에는 도절제사 이하 진관책임자의 명칭을 개정하였으며, 지방의 군사 지휘체계는 도관찰사를 정점으로 병마절도사의 지휘를 받는 육군과 수군절도사의 지휘를 받는 수군으로 정립되었다.

① 길주 지방의 토호 세력이었던 이시애의 난이 이 시기에 발생하였다.

② 사병의 혁파와 함께 도평의사사가 의정부로 고쳐졌고, 중추원은 삼군부가 되면서 삼군부의 관원은 삼군부에만 근무하고 의정부에는 합좌하지 못하게 되었다.

③ 지방재정과 군자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각종 둔전이 증설 또는 신설되었으며, 특히 역둔전이 평안도에 설치되었고, 전국 관둔전의 면적이 종전의 두 배로 늘어났다.

④ 이 시기에 국왕은 『국조보감』과 『동국통감』 편찬을 지시하였다.

**정답 2번**

**정답**

정답은 2번이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세조 대의 왕권 강화와 군제 정비 내용을 다른 왕대의 사실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정리**

- 세조: 공신 세력을 기반으로 6조를 직접 장악하고 친위군을 강화하며 진관 체제를 정비한 왕이다.
- 태종: 사병을 혁파하고 도평의사사를 의정부로 고치며 중앙 통치 체제를 정비한 왕이다.
- 세조는 『국조보감』과 『동국통감』의 편찬을 지시하였고, 『동국통감』은 뒤에 성종 대에 완성되었다.

NoteBase

### 선지별 해설

① O
- 이시애의 난은 1467년에 함길도 길주 지방의 토호 세력 이시애가 일으킨 반란으로 세조 말기에 발생하였다. 세조 대와 관련 있는 사실이다.

② X
- 사병 혁파, 도평의사사의 의정부 개편, 중추원의 삼군부 개편은 태종 대의 핵심 조치이다.
- 틀린 연결은 이 내용을 세조 대의 사실처럼 연결한 점이다.
- 올바르게는 태종이 왕권 강화를 위해 사병을 혁파하고 도평의사사를 의정부로, 중추원을 삼군부로 정비하였다.

③ O
- 세조는 군량과 재정 확보를 위해 둔전을 늘렸고 북방 방비와 관련한 역둔전도 설치하였다. 관둔전 확대는 세조의 군사 정책과 연결된다.

④ O
- 세조는 『국조보감』과 『동국통감』 편찬을 지시하였다. 완성 시점과 편찬 지시 시점을 구분하면 세조 대의 사실로 볼 수 있다.

### 오답 포인트

②는 왕권 강화와 제도 정비라는 큰 방향만 보면 세조와 비슷해 보여 헷갈리기 쉽다. 그러나 사병 혁파와 도평의사사의 의정부 개편은 태종의 표지이고, 세조의 표지는 공신 정치, 친위군 강화, 진관 정비이다.

###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조선 전기 왕대 문제는 정책의 공통 방향보다 고유 표지로 판별하는 편이 빠르다. 사병 혁파와 의정부 개편이면 태종, 공신 기반의 6조 직접 장악과 친위군 확대, 이시애의 난이면 세조로 판단한다.

### 암기 포인트

태종은 사병 혁파, 세조는 공신 기반 왕권 강화와 친위군 정비이다.

NoteBase

**문 18. 다음 즉위년 교서를 발표한 왕의 업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이 있는 자를 상주는 것은 옛 성인의 좋은 규정이요, 죄 있는 자를 벌주는 것은 선왕의 아름다운 법이다. …… 적의 괴수인 흠돌·흥원·진공 등은 그 벼슬이 재능으로 높아진 것이 아니라 실상 왕의 은덕으로 올라간 것이지만, …… 악당들이 서로 도와 날짜와 기한을 정해 반역을 행하려 하였다. - 『삼국사기』 -

① 국학을 설치하여 유학을 진흥시켰다.

② 관료전을 지급하고 녹읍을 폐지하였다.

③ 9주 5소경을 설치하여 지방 통치 체제를 정비하였다.

④ 독서삼품과를 시행하여 관리를 등용하였다.

**정답 4번**

**정답**

정답은 4번이다.

**출제 포인트**

인용문에 보이는 흠돌의 난을 단서로 왕을 신문왕으로 파악하고, 신문왕과 원성왕의 업적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정리**

제시된 교서는 김흠돌의 난 관련자들을 처벌하는 내용이므로 이를 발표한 왕은 신문왕이다.
신문왕은 왕권 강화를 위해 국학 설치, 관료전 지급과 녹읍 폐지, 9주 5소경 정비를 추진하였다.
독서삼품과는 유교 경전 이해 수준에 따라 인재를 선발한 제도로 원성왕 때 시행되었다.

NoteBase

**기출OX 해설집 · 공무원/서울시/7급 · 한국사 · 2017**

**선지별 해설**

① O
국학은 682년에 신문왕이 설치한 유학 교육 기관이므로 신문왕의 업적으로 맞다.

② O
신문왕은 관리에게 관료전을 지급하고 귀족의 경제 기반이던 녹읍을 폐지하여 귀족 세력을 약화하였다.

③ O
신문왕은 9주 5소경 체제를 정비하여 지방 통치 조직을 정비하였으므로 옳다.

④ X
틀린 부분은 '독서삼품과를 시행하여'이다.
독서삼품과는 신문왕이 아니라 원성왕이 유교 경전 독서 수준을 기준으로 관리 등용에 활용한 제도이다.

**오답 포인트**

신문왕과 원성왕 모두 유교 정치와 왕권 강화를 추진하였다는 점 때문에 제도를 서로 바꾸어 넣기 쉽다. 이 문항은 신문왕의 대표 정책들 사이에 원성왕의 독서삼품과를 끼워 넣은 것이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통일 신라 왕 업적 문제는 먼저 사건 단서를 확인한다. 흠돌의 난이 보이면 신문왕을 떠올리고, 국학·관료전·녹읍 폐지·9주 5소경은 신문왕, 독서삼품과는 원성왕으로 분리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신문왕은 흠돌의 난 진압 뒤 국학·관료전·녹읍 폐지·9주 5소경이고, 원성왕은 독서삼품과이다.

NoteBase

**문 19. 다음 역사적 사건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ㄱ. 5·16군사정변
ㄴ. 4·19혁명
ㄷ. 3·1민주구국선언
ㄹ. 10월 유신
ㅁ. 5·18민주화운동
ㅂ. 6·29민주화선언

① ㄴ - ㄱ - ㄹ - ㄷ - ㅁ - ㅂ
② ㄴ - ㄱ - ㄹ - ㄷ - ㅂ - ㅁ
③ ㄷ - ㄴ - ㄱ - ㄹ - ㅁ - ㅂ
④ ㄷ - ㄴ - ㄱ - ㄹ - ㅂ - ㅁ

**정답 1번**

**정답**

정답은 1번이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4·19 혁명 이후부터 6·29 민주화 선언까지 이어지는 한국 현대사의 주요 민주화 사건과 정치 변동의 선후관계를 묻는 문제이다.

**올바른 순서**

1. ㄴ. 4·19혁명 - 1960년에 이승만 정권 붕괴를 가져온 민주화 운동이다.
2. ㄱ. 5·16군사정변 - 1961년에 군부가 정권을 장악한 사건이다.
3. ㄹ. 10월 유신 - 1972년에 박정희 정권이 유신 체제를 선포한 사건이다.
4. ㄷ. 3·1민주구국선언 - 1976년에 유신 체제를 비판하며 발표된 선언이다.
5. ㅁ. 5·18민주화운동 - 1980년에 전두환 신군부에 맞서 일어난 민주화 운동이다.
6. ㅂ. 6·29민주화선언 - 1987년에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수용한 선언이다.

왜 이 순서: 4·19혁명 뒤에 5·16군사정변이 나오고, 유신 체제가 성립한 뒤에야 이를 비판한 3·1민주구국선언이 나올 수 있으며, 5·18민주화운동 이후의 민주화 요구가 누적되어 6·29민주화선언으로 이어진다.

NoteBase

### 선지별 해설

① O: ㄴ-ㄱ-ㄹ-ㄷ-ㅁ-ㅂ의 배열이 맞다. 1960년 4·19혁명, 1961년 5·16군사정변, 1972년 10월 유신, 1976년 3·1민주구국선언, 1980년 5·18민주화운동, 1987년 6·29민주화선언의 순서이다.
② X: 틀린 부분은 ㅂ과 ㅁ의 선후관계이다. 올바르게는 5·18민주화운동이 1980년, 6·29민주화선언이 1987년이므로 ㅁ이 ㅂ보다 앞선다.
③ X: 틀린 부분은 맨 앞의 ㄷ과 ㄴ의 선후관계이다. 올바르게는 3·1민주구국선언은 1976년 사건이고 4·19혁명은 1960년 사건이므로 ㄴ이 ㄷ보다 훨씬 앞선다.
④ X: 틀린 부분이 두 곳이다. 먼저 ㄷ을 ㄴ보다 앞세운 것이 틀렸고, 또 ㅂ을 ㅁ보다 앞세운 것도 틀렸다. 올바르게는 ㄴ-ㄱ-ㄹ-ㄷ-ㅁ-ㅂ이다.

### 오답 포인트

유신 체제 성립 시점인 10월 유신과 그 이후의 반유신 운동인 3·1민주구국선언의 선후를 뒤집거나, 5·18민주화운동과 6월 민주 항쟁의 성과인 6·29민주화선언의 순서를 바꾸면 오답이 된다. 보기 ②와 ④는 5·18과 6·29의 순서를 바꾼 함정이고, 보기 ③과 ④는 3·1민주구국선언을 지나치게 이른 시기로 착각하게 만드는 함정이다.

###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현대사 순서 문제는 정권 흐름과 연도를 함께 묶어 판단한다. 4·19혁명은 이승만 정권 말기, 5·16군사정변과 10월 유신은 박정희 정권기, 3·1민주구국선언은 유신 반대 운동, 5·18민주화운동은 신군부 등장기, 6·29민주화선언은 1987년 민주화 성과라는 축으로 배열하면 선후관계가 정리된다.

### 암기 포인트

4·19 → 5·16 → 유신 → 반유신 선언 → 5·18 → 6·29의 흐름으로 외워 두면 된다.

NoteBase

**문 20. 다음 발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국호는 처음에는 진국, 당나라 책봉을 받은 뒤에는 발해라고 했고, 고구려 계승국을 표방하여 고려로도 부르기도 했다.
ㄴ. 계획도시인 상경의 유적과 유물은 발해의 문화를 잘 보여 준다.
ㄷ. 타구와 격구 놀이가 당을 통해 들어와 널리 유행했다.
ㄹ. 귀하게 여기는 것에는 태백산의 토끼, 남해부의 곤포(다시마), 책성부의 된장, 솔빈부의 말, 위성의 철, 미타호의 붕어 등이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ㄴ, ㄷ
③ ㄱ, ㄴ, ㄹ
④ ㄱ, ㄴ, ㄷ, ㄹ

**정답 4번**

**정답**

정답은 4번이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발해의 국호 인식, 상경 유적, 당 문화 수용, 특산물 교역에 관한 기본 사실을 정확히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발해는 초기에 진국이라 불렸고, 대조영이 당의 책봉을 받은 뒤에는 발해라는 국호를 공식화하였으며 고구려 계승 의식을 바탕으로 고려라고도 불렸다.
상경 용천부는 발해의 대표적 계획도시로, 정연한 도성 구조와 유물이 발해 문화의 수준을 보여 준다.
타구와 격구는 당 문화의 영향을 받아 발해에서 유행한 놀이이다.
발해는 말, 철, 다시마, 된장, 토끼 가죽, 붕어 등 지역 특산물을 교역품으로 삼아 주변과 활발히 교류하였다.

NoteBase

**기출OX 해설집 · 공무원/서울시/7급 · 한국사 · 2017**

### 선지별 해설

1번 X: ㄱ, ㄴ만 옳다고 본 조합이다. 그러나 ㄷ의 타구·격구도 당을 통해 들어와 유행하였고, ㄹ의 특산물 서술도 발해의 대외 교역품을 설명한 내용이므로 옳다. 틀린 표현은 'ㄱ, ㄴ'만이라는 조합이며, 올바르게는 'ㄱ, ㄴ, ㄷ, ㄹ'이다.
2번 X: ㄱ, ㄴ, ㄷ까지는 모두 옳다. 다만 ㄹ도 옳은 내용인데 빠져 있다. 틀린 표현은 ㄹ을 제외한 조합이며, 올바르게는 'ㄱ, ㄴ, ㄷ, ㄹ'이다.
3번 X: ㄱ, ㄴ, ㄹ은 옳다. 그러나 ㄷ의 타구와 격구 역시 당 문화의 수용 사례이므로 제외하면 안 된다. 틀린 표현은 ㄷ을 뺀 조합이며, 올바르게는 'ㄱ, ㄴ, ㄷ, ㄹ'이다.
4번 O: ㄱ은 발해의 국호와 고구려 계승 의식을 설명한 내용으로 옳다. ㄴ은 상경의 계획도시적 성격과 유적의 의미를 설명한 내용으로 옳다. ㄷ은 당 문화의 영향을 받은 놀이 문화를 설명한 내용으로 옳다. ㄹ은 발해의 특산물과 교역품을 열거한 내용으로 옳다. 따라서 ㄱ, ㄴ, ㄷ, ㄹ을 모두 고른 4번이 정답이다.

### 오답 포인트

국호 문제에서 '진국-발해-고려'의 흐름을 따로 외우지 않으면 ㄱ을 망설이기 쉽고, 교역품 나열형 사료를 낯설게 보면 ㄹ을 과감히 지우기 쉽다. 또 조합형 문항에서는 개별 진술 하나만 확신이 약해도 정답 조합 전체를 놓치기 쉽다.

###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발해 문제는 국호, 도성, 당 문화 수용, 교역품처럼 자주 묶이는 기본 소재를 먼저 사실판단한 뒤 조합을 고르면 된다. 조합형 문항에서는 ㄱ~ㄹ을 하나씩 O/X로 확정한 다음 보기 번호를 맞추는 방식이 가장 안전하다.

### 암기 포인트

발해는 고구려 계승 국가이고, 상경은 계획도시이며, 당 문화를 받아들이고 특산물을 활발히 교역한 나라이다.

NoteBase